<h1>나 혼자만 레벨업-86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a250890b545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6화</p>  
<p>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.</p>  
<p>다리에 조금 힘을 주는 것만으로 땅과 순식간에 멀어져, 다시 바닥에 내려설 때는 어느새 하이오크들의 넙적한 등이 눈앞에 있었다.</p>  
<p>착.</p>  
<p>착지하는 동시에 생각한다.</p>  
<p>'이대로 하이오크들을 해체해 버리는 건 쉬워.'</p>  
<p>하지만 그래서는 은신 스킬로 몸을 숨긴 의미가 없다.</p>  
<p>손기훈을 포함해 주위의 헌터들은 모두 국내에서 최고라 일컬어지는 헌터스의 정예들.</p>  
<p>하이오크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찢어지는 걸 보이면 푼수기가 다분한 여힐러가 아니고서야 금세 은신을 깨달을 지도 모른다.</p>  
<p>'뭐, 들켜도 문제가 될 건 없지만.'</p>  
<p>등급 재측정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인 오늘 괜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다.</p>  
<p>그래서 레이드가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 기다려 볼까도 싶었는데... 그랬다가는 헌터들의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았다.</p>  
<p>당장 여힐러만 해도 방금 한번 죽을 뻔했고.</p>  
<p>그러니.</p>  
<p>진우의 눈에서 광채가 번들거렸다.</p>  
<p>'눈에 띄지 않게 취할 것만 취한다.'</p>  
<p>이번 전투의 방식을 정했다.</p>  
<p>여기까지 고민하는데 걸린 시간이 1, 2초.</p>  
<p>직후 의식의 명령보다 빠르게 반사적으로 불러낸 '바루카의 단도'와 '나이트 킬러'가 양손에 들려 있었다.</p>  
<p>'언제 불러 왔지?'</p>  
<p>피식 웃음이 나왔다.</p>  
<p>익숙한 그립감에 쿵쾅거리던 심장의 박동이 차차 안정을 찾아갔다.</p>  
<p>다행이었다.</p>  
<p>은신 상태라 아무도 표정을 볼 수 없는 것이.</p>  
<p>인간들과 하이오크들이 엉망으로 뒤엉켜 싸우는 전장 한가운데서 혼자 웃고 있는 미친놈이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.</p>  
<p>특히나 하이오크 셋에 둘러싸여 진땀을 흘리고 있는 공격대의 리더가 보면 환장할 노릇이리라.</p>  
<p>'일단은 이놈들부터.'</p>  
<p>진우가 움직였다.</p>  
<p>몸을 숙이고서 역수로 쥔 단검으로 하이오크 하나의 아킬레스건을 그었다.</p>  
<p>"크아아아악!"</p>  
<p>난데없이 발 뒷목이 끊어진 하이오크 전사가 고통에 울부짖었다.</p>  
<p>그게 시작이었다.</p>  
<p>춤을 추듯 매끄러운 연속 동작으로 그 옆 놈의 옆구리에 '바루카의 단도'를 찔러 넣었다 뺀 다음, 다른 한 놈은 무릎 뒤쪽을 베었다.</p>  
<p>"크르륵!"</p>  
<p>"크학!"</p>  
<p>전투의 흥분만으로는 통증을 무마시키기 역부족이었는지, 전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급소를 공격당한 하이오크들의 몸이 일순간 빳빳하게 경직되었다.</p>  
<p>그걸로 충분했다.</p>  
<p>물꼬를 트자 격류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, 하이오크들이 당황한 틈을 타 손기훈의 반격이 시작되었다.</p>  
<p>푹!</p>  
<p>"크르... 크르륵."</p>  
<p>"하아, 하아."</p>  
<p>손기훈이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자신의 손에서 길게 이어진 검이 하이오크 하나의 심장을 관통해 있었다.</p>  
<p>"끄륵."</p>  
<p>입가를 부르르 떨며 노려보던 하이오크는 곧 눈을 까뒤집고서 뒤로 쓰러졌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손기훈이 주먹을 움켜쥐었다.</p>  
<p>'좋아! 할 수 있다!'</p>  
<p>자신을 포위한 하이오크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손기훈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동안, 진우는 쉴 틈 없이 던전 구석구석을 누볐다.</p>  
<p>"크아아악!"</p>  
<p>"크으윽!"</p>  
<p>느려진 시간 속에서 홀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티 나지 않게 조금씩 균형을 무너뜨려 갔다.</p>  
<p>스윽!</p>  
<p>진우가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하이오크들의 몸에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겨났다.</p>  
<p>"크르륵!"</p>  
<p>"크악?"</p>  
<p>하이오크들이 갑작스런 상처에 몸이 경직되며 신경이 분산되면 그걸로 끝.</p>  
<p>빈틈을 놓치지 않는 최상급 헌터들의 공격이 이어졌다.</p>  
<p>'뭔가... 싸우기가 편해졌다.'</p>  
<p>'뭐지?'</p>  
<p>'이렇게 많은 하이오크들을 상대로 피해없이 이기는 건가?'</p>  
<p>공격대는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벅차올랐다.</p>  
<p>적어도 한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임했던 전투에서 모두가 기대 이상으로 잘 싸우고 있었던 까닭이었다.</p>  
<p>퍼걱!</p>  
<p>헌터 하나가 휘두른 메이스에 하이오크 한 놈의 머리가 깨졌다.</p>  
<p>그때 진우의 귓가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'오.'</p>  
<p>힘들게 돌아다닌 보람이 있었다.</p>  
<p>레벨이 올라갔다.</p>  
<p>적의 숨통을 끊거나 치명상을 입히지 않아도 경험치는 들어오는 모양이었다.</p>  
<p>'직접 처치한 게 두 마리.'</p>  
<p>처치하는 걸 도운 것이 13마리 이상.</p>  
<p>경험치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면 레벨업이 될 만했다.</p>  
<p>흥이 난 진우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졌다.</p>  
<p>스걱!</p>  
<p>푹!</p>  
<p>"크아아악!"</p>  
<p>진우의 암약에 힘입어 전투도 슬슬 막을 내려가고 있었다.</p>  
<p>'후-!'</p>  
<p>한걸음 뒤로 물러선 진우가 단검들을 창고로 돌려보내고서 주변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'이 정도면...'</p>  
<p>상황은 거의 정리된 듯했다.</p>  
<p>거기에 보너스로 1업까지.</p>  
<p>문득 진우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.</p>  
<p>바닥에는 스무 구에 가까운 하이오크들의 사체들이 뒹굴고 있었다.</p>  
<p>'혼자서 이 녀석들을 다 잡았다면 1레벨은 더 올랐을 거 같지만.'</p>  
<p>아쉽게도 여긴 헌터스가 큰돈을 주고 공략을 허가받은 그들의 사냥터였다.</p>  
<p>이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진우는 만족스런 얼굴로 원래 짐꾼이 숨어 있어야 할 곳, 던전의 으슥한 구석으로 돌아갔다.</p>  
<p>"크아아아!"</p>  
<p>어느새 입장이 뒤바뀌어 헌터들에게 포위당한 마지막 하이오크 한 놈이 비명을 질렀다.</p>  
<p>놈의 비명이 동굴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.</p>  
<p>진우는 하이오크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은신을 해제했다.</p>  
<p>스르르.</p>  
<p>헌터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.</p>  
<p>두리번두리번.</p>  
<p>고개를 돌려봐도 서 있는 하이오크는 없었다.</p>  
<p>"이... 이긴 건가?"</p>  
<p>"끝났어?"</p>  
<p>"잠깐."</p>  
<p>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에 앞서, 리더인 손기훈이 부상자를 확인했다.</p>  
<p>"다친 사람! 누구 다친 사람 없어?"</p>  
<p>사실 상급 힐러가 있는 공격대에서 부상자는 잘 나오지 않는다.</p>  
<p>목숨만 붙어 있다면 마법으로 금방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.</p>  
<p>손기훈은 부상자의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었다.</p>  
<p>그는 팀 내에 죽은 사람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돌려 묻고 있었다.</p>  
<p>눈이 마주친 여힐러가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부상자는 있으되 사망자는 없었다.</p>  
<p>그리고 방금 모든 부상자의 치료가 끝이 났다.</p>  
<p>"그럼..."</p>  
<p>그러자 공격대 전원의 얼굴이 희열로 물들었다.</p>  
<p>"이겼다!"</p>  
<p>"이겼다고!"</p>  
<p>"와아-!"</p>  
<p>헌터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.</p>  
<p>진우는 팔짱을 끼고 흐뭇한 표정으로 헌터들을 지켜보았다.</p>  
<p>'하이오크란 놈들이 그렇게 강한가?'</p>  
<p>체감상으로는 글쎄...</p>  
<p>상급 던전 레이드 경험이 없는 진우에게는 공격대의 환호가 피부로 잘 와 닿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몰랐다.</p>  
<p>A, B급의 상급 던전들은 등급뿐만 아니라 마력량까지 세부적으로 계산해 공략을 시도한다는 사실을.</p>  
<p>하이오크는 A급 던전에서도 높은 수준의 마수였다.</p>  
<p>그것도 평범한 하이오크가 아니라 20마리 이상 모인 하이오크 전사들이라면...</p>  
<p>지금의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다.</p>  
<p>기적의 원인이 된 주인공, 진우는 자신이 한 일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공격대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.</p>  
<p>'음?'</p>  
<p>그 와중에 여힐러가 진지한 얼굴로 손기훈에게 다가갔다.</p>  
<p>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눈빛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그쪽에 귀를 기울였다.</p>  
<p>"저기 기훈 오빠."</p>  
<p>"응?"</p>  
<p>"아까 하이오크랑 싸울 때요..."</p>  
<p>여힐러는 조심스럽게 방금 전 자기가 본 일을 천천히 설명했다.</p>  
<p>공중으로 떠오른 하이오크가 자기 머리를 뽑아 버리더니 다른 하이오크를 공격해 죽였다는 이야기를.</p>  
<p>아주 심각한 표정으로.</p>  
<p>"..."</p>  
<p>손기훈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.</p>  
<p>"진짜라니까요!"</p>  
<p>붉게 상기된 얼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힐러를 보면서 진우는 끅끅 웃음을 눌러 삼켰다.</p>  
<p>그렇게 승리의 여운을 즐기는 것도 잠시.</p>  
<p>헌터들이 하나둘 리더인 손기훈 주변으로 둥글게 모여들었다.</p>  
<p>"대장, 계속하실 겁니까?"</p>  
<p>"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?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이오크라니."</p>  
<p>"일단은 철수하는 게 어때요?"</p>  
<p>손기훈은 동굴 저편을 보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.</p>  
<p>'쉽지 않겠지.'</p>  
<p>진우는 손기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.</p>  
<p>S급 헌터가 둘이나 있는 헌터스에서 손기훈이 정예 공격대를 맡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.</p>  
<p>자신의 첫 커리어나 마찬가지인 레이드에서 이렇게 단 시간 만에 후퇴라니.</p>  
<p>'누구나 클리어에 욕심이 날 만한 상황이다.'</p>  
<p>하지만 현명한 대장이라면...</p>  
<p>결심을 굳혔는지 손기훈의 입술이 천천히 달싹거렸다.</p>  
<p>진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.</p>  
<p>다행히 손기훈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.</p>  
<p>"일단 철수하겠습니다."</p>  
<p>던전에서 리더의 결정은 절대적.</p>  
<p>공격대의 일원으로 속한 이상, 공격대 대장이 내린 결정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.</p>  
<p>왜, 전시에 명령 불복종 병사는 즉결 처형한다고도 하지 않는가?</p>  
<p>던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다.</p>  
<p>그래서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가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 중 하나였는데, 손기훈은 팀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.</p>  
<p>손기훈의 후퇴 지시에 공격대 전원이 가슴을 쓸어내렸다.</p>  
<p>"휴우-"</p>  
<p>"난 또 손 형이 끝까지 가 보자고 할까 봐 가슴 졸였네."</p>  
<p>손기훈은 씩 웃으며 발언의 주인공 어깨를 툭 쳤다.</p>  
<p>"나도 그렇게 꼴통은 아니다."</p>  
<p>"알지. 그런데 봐 봐, 형. 나 손 떨리는 거."</p>  
<p>"엄살은 그만하고. 자, 다들 이동합시다."</p>  
<p>진우는 짐 가방을 둘러멨다.</p>  
<p>손기훈의 지시에 따라 공격대의 이동이 재개됐다.</p>  
<p>방향은 반대가 됐지만.</p>  
<p>진우가 씁쓸히 웃었다.</p>  
<p>'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.'</p>  
<p>어쨌거나 자신은 손님이었다.</p>  
<p>손님 입장에서 주인의 결정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.</p>  
<p>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인 듯했다.</p>  
<p>"아..."</p>  
<p>여힐러는 자기 말을 눈꼽만큼도 믿어 주지 않는 대장이 야속한지 툴툴거리며 진우 곁으로 왔다.</p>  
<p>"진짠데."</p>  
<p>입이 삐죽 튀어나와 있던 그녀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진우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"저기 혹시 아까 하이오크가."</p>  
<p>"못 봤습니다."</p>  
<p>"히잉..."</p>  
<p>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.</p>  
<p>진우는 웃음을 삼키고 있는 걸 들키지 않도록 애를 써야 했다.</p>  
<p>그런데 얼마나 이동했을까?</p>  
<p>갑자기 선두에서 급하게 걸음을 멈췄다.</p>  
<p>손기훈이 오른손을 들었다.</p>  
<p>"저, 정지!"</p>  
<p>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묻어나왔다.</p>  
<p>지친 걸음으로 걷던 다른 헌터들과, 혹시나 추격해 오는 마수가 없는지 후미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진우도 일제히 멈춰 섰다.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헌터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.</p>  
<p>"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"</p>  
<p>"이건 또 뭐야?"</p>  
<p>"왜 길이 막혀 있는 건데? 올 때는 멀쩡했잖아?"</p>  
<p>소란스런 그들을 지나친 진우가 앞으로 나와 손을 뻗어 보았다.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막혀... 있다?'</p>  
<p>길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.</p>  
<p>처음엔 인던을 떠올렸다.</p>  
<p>인던과 현실 세계의 경계를 나누어 주던 벽들.</p>  
<p>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'아니, 그것과는 다르다.'</p>  
<p>이 벽에서는 인위적인 냄새가 강하게 났다.</p>  
<p>마력이 섞여 있는 걸 봐서는 지성있는 마수가 걸어 놓은 마법인 듯했다.</p>  
<p>'하지만 어째서?'</p>  
<p>왜 오는 길을 막은 게 아니라 나가는 길을 막은 걸까?</p>  
<p>그때.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휙 돌렸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마치 기다렸다는 듯 끔찍한 양의 마력 파장이 저 멀리 동굴의 끝쪽에서부터 성난 해일처럼 밀려왔다.</p>  
<p>'이럴 수가...'</p>  
<p>이게 이번 던전의 보스라고?</p>  
<p>게이트 밖에서나 처음 던전 안에 들어섰을 때 느낄 수 있었던 마력 파장과는 스케일이 달랐다.</p>  
<p>다른 헌터들도 그 어마어마한 마력을 느꼈는지 오싹 몸을 떨었다.</p>  
<p>"뭐, 뭐야?"</p>  
<p>"갑자기 소름이 돋는데?"</p>  
<p>점점 창백해져 가는 헌터들의 얼굴을 보면서 진우는 한 가지 가설을 떠올렸다.</p>  
<p>'설마 자신의 기척을 숨길 수 있는 보스가 있다고 한다면...'</p>  
<p>오는 길에는 없었던 벽.</p>  
<p>그리고 벽을 생성하고 난 뒤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보스.</p>  
<p>'설마... 함정을 파고 헌터들을 끌어들인 건가?'</p>  
<p>그렇게 생각하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.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저벅저벅.</p>  
<p>저벅저벅.</p>  
<p>던전의 어둠 너머에서 아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수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